

Session 23 David's Sin: Bathsheba and Uriah (2 Sam. 11; Ps. 38)
제 23장 다윗의 죄: 밋세바와 우리아 (삼하 11장, 시 38편)

I. A TURNING POINT IN THE LIFE OF DAVID

다윗의 삶의 전환점

- A. 2 Samuel 11 is the turning point in David's life. He committed adultery with Bathsheba and then had her husband Uriah killed. Although he repented, there were devastating consequences for him, his family, and the entire nation. His sin and resulting judgment are the subject of the next ten chapters (2 Sam. 11-20). This story is a warning of judgment, but also a promise of love and hope.

삼하 11 장은 다윗의 삶에 있어서 전환점이 되는 곳이다. 그는 밋세바와 간음을 저질렀고,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다. 그가 이를 회개하기는 했지만, 이로 인해 그와 그의 가족, 나라 전체는 충격적인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 삼하 11 장 다음의 10 개나 되는 장의 주제는 그의 죄와 이로 인한 심판에 대해 다루고 있다 (삼하 11-20 장). 이 스토리는 심판에 대해 경고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랑과 소망을 약속하는 것이기도 하다.

- B. We have no pleasure in considering this sad season of David's life; however, we do it to benefit our spiritual life. We approach it with humility, looking to ourselves lest we also be tempted (Gal. 6:1), knowing that if we sin as David did, then we will also come under God's discipline as David did.

우리는 다윗의 삶에 있었던 이 슬픈 스토리를 다루기가 그다지 즐겁지가 않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적인 삶을 위해 이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우리는 이 스토리에 대해 겸손을 가지고 다루며, 우리가 다윗이 지었던 죄를 저지른다면 우리 또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유혹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자 한다 (갈 6:1).

- C. David's story is more than a human story—it is a salvation story about the God who delights to intervene with grace and mercy. Remarkable forgiveness shines forth from David's story. His sin gave opportunity for the riches of God's grace to be openly manifested for the benefit of so many.

다윗의 스토리는 하나의 인간사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 이는 우리 삶에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역사하길 즐겨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스토리이다. 다윗의 스토리 안에는 엄청난 죄 사함의 스토리가 빛나고 있다. 이는 그의 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부요하신지가 드러나게 되어, 많은 이들에게 유익이 되는 부분이다.

II. THE CONTEXT OF DAVID'S SIN: WAR AGAINST THE AMMONITES (2 SAM. 11:1)

다윗이 죄를 지은 배경: 암몬 족속과의 전쟁 (삼하 11:1)

- A. The context here is Israel's army resuming its military conflict with the Ammonites (11:1). The Ammonites retreated to the walls of their royal city Rabbah. Then Israel set a siege around Rabbah.

이 스토리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암몬 족속과의 전쟁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11:1). 암몬 족속은 수도인 랍바의 성벽 안쪽까지 물러난 상태였다. 이스라엘은 랍바를 에워싼 상황이었다.

¹It happened in the spring of the year, at the time when kings go out to battle, that David sent Joab and...all Israel; and they destroyed the people of Ammon and besieged Rabbah. But David remained at Jerusalem. (2 Sam. 11:1)

1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삼하 11:1)

- B. *David remained:* David often led his men in battle. Had he been engaged in fighting the Lord's battle, he would not have been overcome in a battle against lust. AW Pink, "Many conquerors have been ruined by their carelessness after a victory, and many have been spiritually wounded after great successes against sin." If we get out of the battle, then we are more vulnerable to get into sin.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다윗은 자주 자신의 부하들을 데리고 전쟁에 나갔다. 만일 그가 하나님의 전쟁에 계속해서 나가고 있었다면, 그는 정욕과의 전쟁에서 참패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아더 핑크는 이렇게 말했다, "많은 정복자들이 승리 이후의 부주의함으로 망해버렸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죄에 대해 큰 성공을 거둔 이후에 영적으로 해를 입었다." 만일 우리가 전쟁에서 빠져 나와 있다면, 우리는 죄에 더 쉽게 빠져들게 된다.

III. DAVID COMMITTED ADULTERY WITH BATHSHEBA (2 SAM. 11:2-5)

다윗이 밋세바와 간음하다 (삼하 11:2-5)

- A. David saw Bathsheba bathing and called her to his house (11:2-5). David's house was probably built on the highest point of the City of David. Thus from his rooftop he had a clear view of part of the city. He probably walked on the roof to enjoy a few evening breezes after a warm day.

다윗은 밋세바의 목욕 장면을 보았고, 그녀를 집으로 불러들였다 (11:2-5). 다윗의 집은 아마도 다윗 성의 가장 높은 곳에 지어졌을 것이다. 따라서 그의 집 옥상에서는 도시 전체를 다 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는 아마도 온화한 날씨의 저녁에 부는 선선한 바람을 즐기기 위해 옥상으로 올라갔을 것이다.

²*It happened one evening that David arose from his bed and walked on the roof of the king's house. And from the roof he saw a woman bathing, and the woman was very beautiful to behold. ³So David sent and inquired about the woman. And someone said, "Is this not Bathsheba, the daughter of Eliam, the wife of Uriah the Hittite?" ⁴Then David sent messengers, and took her; and she came to him, and he lay with her...and she returned to her house. ⁵And the woman conceived; so she sent and told David, and said, "I am with child." (2 Sam. 11:2-5)*

²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³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헛 사람 우리아의 아내 밋세바가 아니니이까 하니 ⁴ 다윗이 전령을 보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한글KJV: 그녀가 다윗에게로 오니] ...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⁵ 그 여인이 임신하매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삼하 11:2-5)

- B. *She came to him:* Why did she come? Was she naïve, intimidated, or desiring a relationship with David? Her motive is not clear, leading us to conclude that this story is mostly about David's sin.

그녀가 다윗에게로 오니: 왜 그녀는 다윗에게 왔는가? 그녀는 너무 순진했거나, 위협을 느꼈거나, 혹은 다윗과의 관계를 갈망하고 있었는가? 그녀의 동기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이 모든 스토리는 다윗의 죄에 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 C. **Someone said:** When David inquired about Bathsheba he found out that she was the *daughter of Eliam*, one of David's "thirty mighty men" (23:34), the *granddaughter of Ahithophel*, one of his senior counselors (16:23; 23:34), and the *wife of Uriah*, one David's best soldiers, also one of "the thirty mighty men" (23:39). In this sin, David also betrayed three of his most valued leaders.

그가 아뢰되: 다윗이 밋세바에 대해 알아봤을 때, 그는 그녀가 다윗의 "30 명의 용사" 중 하나인 (23:34) 엘리암의 딸이자, 그의 고문 중 하나인 아히도벨의 손녀이자 (16:23; 23:34), 다윗의 최고의 군사 중 하나이자 "30 명의 용사" 중 하나인 우리야의 아내인 것을 알았다 (23:39). 다윗이 이 죄를 지음으로, 그는 자신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 중 3 명을 배신한 것이 되었다.

³⁴...Eliam the son of Ahithophel the Gilonite...³⁹ and Uriah the Hittite: thirty-seven in all. (2 Sam. 23:34, 39)

³⁴ ... 길로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 ³⁹ 헛 사람 우리야라 이상 총수가 삼십칠 명이었더라 (삼하 23:34, 39)

²³Now the advice of Ahithophel...was as if one had inquired at the oracle of God. (2 Sam. 16:23)

²³ 그 때에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삼하 16:23)

- D. The law of Moses commanded the death penalty for adultery (Lev 20:10; Deut. 22:22). Therefore both David and Bathsheba were deserving of being put to death.

모세의 율법은 간음하는 자를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다 (레 20:10; 신 22:22). 따라서 다윗과 밋세바는 모두 죽어 마땅한 상태였다.

¹⁰The man who commits adultery with another man's wife, he who commits adultery with his neighbor's wife, the adulterer and the adulteress, shall surely be put to death. (Lev. 20:10)

¹⁰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레 20:10)

- E. **Progression:** In the progression of David's sin he saw Bathsheba, then *inquired* about her to stir his curiosity, then *sent for her* so that they could spend time together, and then *he lay with her*.

진행: 다윗의 죄가 진행되는 것을 보면, 그는 먼저 밋세바를 보았고, 궁금증이 일어나 그녀에 대해 알아보았고, 두 사람이 서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그녀를 데려오게 했고, 그리고는 그녀와 동침했다.

IV. DAVID'S COVER UP: TO HAVE URIAH KILLED (2 SAM. 11:6-27)

다윗의 은폐: 우리야를 죽게 만들다 (삼하 11:6-27)

- A. David put his cover-up plan into action (11:6-9). He ordered Uriah to return to Jerusalem to spend one night with his wife Bathsheba. Traveling forty miles to Jerusalem, Uriah was probably perplexed when David only asked him how Joab was and how the war was going (11:7).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은폐할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11:6-9). 그는 우리아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고 명령해서, 그의 아내 밋세바와 동침하게 했다. 우리아가 예루살렘으로 40 마일(약 65km)을 돌아왔는데, 다윗이 단지 그에게 요압의 안부를 묻고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물어봤을 때 그는 아마 혼란스러웠을 것이다 (11:7).

⁶Then David sent to Joab, saying, “Send me Uriah the Hittite.”...⁷When Uriah had come to him, David asked how Joab was doing, and how the people were doing, and how the war prospered. ⁸David said to Uriah, “Go down to your house and wash your feet.” So Uriah departed from the king’s house, and a gift of food from the king followed him. ⁹But Uriah slept at the door of the king’s house...and did not go down to his house. (2 Sam. 11:6-9)

⁶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헛 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 ⁷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의 어떠한 것을 묻고 ⁸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⁹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삼하 11:6-9)

1. **Wash your feet:** is a euphemism for sexual intercourse. David’s plan was for Uriah to spend a night at home with Bathsheba so that he would be seen as the father of the child.

발을 씻으라: 이는 성 관계를 가지는 것에 대한 완곡한 표현이다. 다윗의 계획은 우리아가 집에서 밋세바와 밤을 보내게 해서, 밋세바가 임신한 아이가 우리아의 아들인 것처럼 보이려고 했다.

2. **Gift of food:** David sent food to Uriah’s home to encourage an enjoyable evening together.

왕의 음식물: 다윗은 두 사람이 즐거운 저녁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아의 집에 음식물을 보냈다.

- B. For a second time, Uriah had dinner with David in the palace and refused to go home (11:10-13). He refused to go to the comfort of his house because of his commitment to the Lord (the ark) and to his fellow soldiers. David knew that alcohol would lower his inhibitions related to sexual activity.

우리아는 두 번이나 궁에서 다윗과 저녁을 먹은 후 집으로 가기를 원하지 않았다 (11:10-13). 그는 하나님(언약궤)과 자신의 동료 병사들을 향한 자신의 책무로 인해 자신의 집에서 편안함을 누리기를 원하지 않았다. 다윗은 그가 술을 마시면 성적인 관계를 가지기를 꺼려하는 것이 좀 없어질 것이라 생각했다.

¹⁰So when they told David, saying, “Uriah did not go down to his house,” David said to Uriah, “Did you not come from a journey? Why did you not go down to your house?” ¹¹And Uriah said to David, “The ark and Israel and Judah are dwelling in tents, and my lord Joab and the servants of my lord are encamped in the open fields. Shall I then go to my house to eat and drink, and to lie with my wife? As you live, and as your soul lives, I will not do this thing.”...¹²Uriah remained in Jerusalem that day and the next. ¹³Now when David called him, he ate and drank before him; and he made him drunk...but he did not go down to his house. (2 Sam. 11:10-13)

¹⁰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네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네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¹¹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 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 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¹²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 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¹³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삼하 11:10-13)

- C. David ordered the death of Uriah (11:14-15). David had to choose between getting caught in adultery and ordering the death of an innocent soldier. We are shocked to see this side of David. This was surely one of the longest and most terrible nights in David's life. Uriah carried an official state letter that was sealed with the royal signet ring to ensure that its contents were confidential.

다윗은 우리아를 죽게 두라고 명령했다 (11:14-15). 다윗은 간음이 발각될지, 무고한 병사를 죽게 만들지, 둘 중에 선택을 해야 했다. 다윗의 이러한 면은 충격적인 부분이다. 이 부분은 필시 다윗의 삶에 있어서 가장 길고도 끔찍하고 어두운 밤의 시간이었을 것이다. 우리아는 안에 있는 내용을 볼 수 없도록 왕의 인장으로 봉해진 왕의 편지를 들고 갔다.

14In the morning it happened that David wrote a letter to Joab and sent it by the hand of Uriah. ¹⁵And he wrote in the letter, saying, "Set Uriah in the forefront of the hottest battle, and retreat from him, that he may be struck down and die." (2 Sam. 11:14-15)

¹⁴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¹⁵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삼하 11:14-15)

- D. Joab executed David's evil plan to kill Uriah (11:16-21). Surely this plan perplexed Joab. Once Israel's army surrounded the city, direct attacks against the city walls would not have been needed. Typically armies waited until the people in a city surrendered because of lack of food and water.

요압은 우리아를 죽이려고 하는 다윗의 악한 계획을 시행했다 (11:16-21). 분명히 요압은 이 계획으로 인해 당황스러웠을 것이다. 이스라엘 군대가 이 도시를 포위하고 있는 상태라서, 성벽을 향해 직접적인 공격을 할 필요가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는 보통 군대는 도시를 포위하고 사람들이 음식물이 없어 항복할 때까지 기다린다.

16...while Joab besieged the city, that he assigned Uriah to a place where he knew there were valiant men...¹⁷Some of the people of the servants of David fell; and Uriah the Hittite died also. (2 Sam. 11:16-17)

¹⁶ 요압이 그 성을 샅피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¹⁷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헛 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삼하 11:16-17)

- E. David married Bathsheba after giving her time to mourn the death of her husband (11:26-27). His plan seemed to work in the eyes of men, but the Lord was displeased.

다윗은 밧세바가 자신의 남편의 죽음을 위해 애도하도록 한 뒤, 그녀와 결혼했다 (11:26-27). 그의 계획은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성공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었다.

26When the wife of Uriah heard that Uriah her husband was dead, she mourned for her husband. ²⁷And when her mourning was over, David...brought her to his house, and she became his wife and bore him a son. But the thing that David had done displeased the LORD. (2 Sam. 11:26-27)

²⁶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²⁷ 그 장례를 마치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삼하 11:26-27)

V. PSALM 38: DAVID'S ANGUISH AND PRAYER FOR MERCY

시 38편: 다윗의 고통과 자비를 구하는 기도

- A. There is no occasion in David's life that more clearly fits the prayer in Psalm 38 than the time of his greatest sin as described in 2 Samuel 11. He asked that God not publicly rebuke him or chasten him with difficult circumstances, so he probably prayed this *before* receiving the rebuke and chastening in 2 Samuel 12. He was already being pierced in his heart and pressed down by God's hand (38:2)

시편 38 편의 기도는 다윗의 삶에서 삼하 11 장에 기록된 그가 큰 죄를 저지른 시간과 가장 명확하게 들어맞는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공개적으로 책망하시거나 상황을 어렵게 하심으로 징계하지 마시길 기도했으며, 아마 그가 이 기도를 한 것은 삼하 12 장에서 책망을 받기 이전이었을 것이다. 그는 마음에 이미 찔림이 있었고 하나님의 손이 누르시는 것을 경험하고 있었다 (38:2).

¹*O LORD, do not rebuke me in Your wrath, nor chasten me in Your hot displeasure! ²For Your arrows pierce me deeply, and Your hand presses me down. (Ps. 38:1-2)*

¹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²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시 38:1-2)

- B. David was in anguish emotionally and felt sick physically because of his sin (38:3-10).

다윗은 죄로 인해 감정적으로 괴로움을 느끼고, 육체적으로 고통을 느끼는 상태였다 (38:3-10).

⁴*For my iniquities have gone over my head; like a heavy burden they are too heavy for me.*

⁵*My wounds are foul and festering because of my foolishness. ⁶I am troubled...I go mourning all the day long. ⁷For my loins are full of inflammation, and there is no soundness in my flesh.*

⁸*I am feeble and severely broken; I groan because of the turmoil of my heart... (Ps. 38:4-8)*

⁴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⁵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⁶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⁷ 내 허리에 열기가 아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⁸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으매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시 38:4-8)

- C. David's loved ones stood aloof from him as they saw signs of the scandal he caused (38:11-12). Undoubtedly many whispers about David's scandal circulated among the court and his wives. We can only imagine how the court whispered about David sending for Bathsheba and then the news of her pregnancy, followed by Uriah coming from the battlefield to have dinner twice with the king, and then his unnecessary death that came as a result of Joab ordering him to the city walls. The very perceptive Ahithophel was probably offended at what happened to his granddaughter Bathsheba.

다윗의 사랑하는 자들은 그가 저지른 부끄러운 일로 인해 그에게 냉담히 행동하며 멀리했다 (38:11-12).

의심할 여지없이, 다윗의 궁과 그의 아내들 사이에는 그에 대한 많은 말들이 돌았을 것이다. 우리는 궁에서 다윗에 대한 소문을 서로 속삭이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을 뿐이다. 그가 밋세바를 데리고 오게 하고, 그녀가 임신을 했으며, 우리아를 전장에서 데려와서 두 번이나 자신과 저녁을 먹고, 요압을 시켜 우리아를 성벽으로 보내서 그를 죽게 한 일들에 대해서 말이다. 매우 통찰력이 있던 아히도벨은 자신의 손녀딸 밋세바에게 일어난 일로 인해 아마도 마음이 상했을 것이다.

¹¹*My loved ones and my friends stand aloof from my plague, and my relatives stand afar off. ¹²Those who...seek my hurt speak of destruction, and plan deception all the day... (Ps. 38:11-12)*

¹¹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¹²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시 38:11-12)

VI. THE PROGRESSION TO TEMPTATION AND LUST (JAS. 1:14-15)

유혹과 정욕으로 이어지는 과정 (약 1:14-15)

A. James identified six stages to temptation and lust.

야고보는 유혹과 정욕으로 이어지는 6 가지 단계에 대해 기록했다.

¹⁴Each one is tempted when he is drawn away by his own desires and enticed. ¹⁵When desire has conceived, it gives birth to sin; and sin, when it is full-grown, brings forth death. (Jas. 1:14-15)

¹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¹⁵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약 1:14-15)

B. **Stage #1 Being drawn away:** Lustful desire is stirred in the *imagination*. Satan wants the fleeting thoughts of lust to become sustained thoughts (fantasy). There is a big difference between a momentary wrong thought and being drawn away or captured by it. This difference has been likened to the difference between a bird *flying over* someone's head and a bird *building a nest* on it.

1 단계, 끌림을 받음: 이 일은 사람들의 상상에서 욕망에 가득 찬 정욕이 자극되는 것이다. 사단은 잠깐 밀려온 정욕의 생각이 머리 속에 지속되기를 원한다 (공상, 환상). 잠시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것과, 이것에 끌리고 사로잡히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이 둘의 차이는 마치 새가 어떤 사람의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과, 새가 그 위에 둥지를 짓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C. **Stage #2 Being enticed with lust:** This occurs when one is *entrenched* in lustful fantasy.

2 단계, 정욕에 미혹됨: 이는 사람들이 욕망에 가득 찬 환상에 빠져버릴 때 일어난다.

D. **Stage #3 Lustful desire is conceived:** This happens when one makes a *decision* to walk out sinful actions. James used the analogy of a baby in its mother's womb. The decision to act out lust causes sinful behavior to become "alive." As a child is alive at conception, yet is not seen by others, so a newly conceived act of sin can be "alive" in a believer, yet still unseen by others. David made two premeditated sinful decisions—he sent for Bathsheba (11:4) and ordered Uriah's death (11:14).

3 단계, 정욕을 잉태함: 이 일은 사람들이 죄악된 행동으로 옮기기로 결정할 때 일어난다. 야고보는 이를 어머니의 태중에 있는 아기에 비유했다. 욕망에 가득 찬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기로 결정하는 것은, 죄악된 행동이 "태어나게" 한다. 아이가 배속에 잉태되지만 다른 이들이 아직은 이를 볼 수 없는 것과 같이, 새로 잉태된 죄악의 행동은 성도의 삶에 "태어날 수" 있지만 다른 이들이 아직 이를 볼 수가 없다. 다윗은 두 가지 미리 계획된 악한 결정들을 했다. 그는 밋세바를 데려오게 했고 (11:4), 우리아를 죽게 했다 (11:14).

E. **Stage #4 Lustful desire gives birth to sin:** This happens when one *acts out* lustful desires. At the time of birth, a baby comes forth so that its features can be seen clearly. So also, when lust gives birth to action, the specific features of that lust are then openly manifested. When we act out in sin, we give Satan a legal door of entry into our lives that he might work in a far greater way.

4단계, 정욕이 죄를 낳음: 이 일은 사람들이 욕망에 가득찬 생각을 행동에 옮길 때 일어난다. 아기를 낳을

때에는 우리가 아기를 명확하게 볼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정욕이 죄를 낳을 때, 정욕으로 인한 특정한 모습이 밖으로 보이게 드러나게 된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는 사단에게 우리 삶에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주는 것이며, 사단이 우리에게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한다.

- F. **Stage #5: Sin becomes full-grown:** This occurs as people become *addicted* to various lusts. Without repentance, lust does not stop with one act, but it “grows” (Eph. 4:22) until it is full-grown. Full-grown sin is less and less satisfying as one continues to engage in it. Thus the craving for a specific sin increases while the satisfaction in it decreases. Demons are much more involved at this stage.

5 단계, 죄가 장성하게 됨: 이 일은 사람들이 다양한 정욕에 **중독**될 때에 일어난다. 정욕은 회개하지 않으면 단 한 번의 행위로 멈추지 않고, 장성할 때까지 “커진다” (엡 4:22). 다 자란, 장성한 죄는 사람들이 그 죄를 지을수록 그 만족감이 더 덜하게 된다. 따라서 특정한 죄에 대해 만족감이 줄어들수록 이에 대한 갈망은 커지게 된다. 이 단계에서 악한 영들은 더욱 개입하게 된다.

²²...concerning your former conduct, the old man which grows corrupt according to the deceitful lusts... (Eph. 4:22)

²²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엡 4:22)

- G. **Stage #6 Sin brings forth death:** The *consequence* of sin is always death, which includes various types of loss, shame, and pain. We only have two choices: we *die voluntarily* to sin's lustful lure by choosing to walk in righteousness, which has a great reward, or we *die involuntarily* because we yield to sin and reap its death-producing consequences (Ps. 19:11; Mt. 16:24-27; Jn. 12:24)

6 단계, 죄가 사망을 낳음: 죄의 **결과**는 항상 사망이며, 이는 다양한 손해와 수치, 고통을 야기한다. 우리는 둘 중에 선택해야 한다. 우리가 의로움을 선택해서 죄의 정욕의 유혹에 대해 **자발적으로 죽던지** (이에는 큰 상급이 있음), 죄에 굴복하고 사망을 낳는 결과를 거두게 됨으로 **원치 않는 죽음을** 당하는 것이다 (시 19:11; 마 16:24-27; 요 12:24).

²³For the wages [payment] of sin is death [loss, pain and shame]. (Rom. 6:23)

²³ 죄의 삯[값]은 사망[손해, 고통, 수치심]이요 ... (롬 6:23)

- H. We can sow to the Spirit and walk in victory over the giants that we face, or we can sow to the flesh be defeated by them. Two names connected with David are Goliath and Bathsheba. Both are associated with testing and conquest. He conquered Goliath, but then was conquered by his lust.

우리는 성령을 위하여 심고 우리가 직면하는 거인들에 대해 승리하거나, 육체를 위하여 심고 이것에 패배할 수도 있다. 다윗과 관련된 두 사람의 이름은 골리앗과 밋세바이다. 두 사람은 모두 시험과 정복에 연관되어 있다. 그는 골리앗은 정복했지만, 정욕에 패배했다.

⁷Do not be deceived, God is not mocked; for whatever a man sows, that he will also reap.

⁸For he who sows to his flesh will...reap corruption, but he who sows to the Spirit will...reap life. (Gal. 6:7-8)

⁷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⁸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갈 6:7-8)